

12월2일 제11회 브리더스컵 개최…국내 최강 2세마 가린다



렛츠런파크 부경 킹삭스(왼쪽)와 서울 대완마가 12월2일 열리는 제11회 브리더스컵에서 국내 최고 2세마 경쟁을 펼친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킹삭스냐 대완마냐…부경 vs 서울 자존심 대결

부경 킹삭스, 데뷔 후 3전전승 상승세
서울 대완마도 대상경주 첫 승 대항마

국내 최고 2세마는 누가 차지할까. 제11회 브리더스컵(상금 5억원, GII)이 12월 2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경에서 제5경주로 열린다. 1400m 중단거리이며, 2세 암수 국산마만 출전할 수 있다. 브리더스컵은 파워블레이드, 파이널보스 등 많은 명마를 배출했으며 올해도 서울과 부경의 대표 신인들이 출동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브리더스컵은 부경경마와 서울경마가 번갈아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6년 서울의 파이널보스가 우승하자, 2017년에는 부경의 액톤블레이드가 왕좌를 가져왔다. 올해 역시 킹삭스(부경), 대완마(서울) 등 만만찮은 에이스들이 참여해 부경과 서울의 자리싸움이 불만하다는 평가다.

부경에서는 제2회 김해시장배(부경대회)에서 첫 대상경주 우승을 맞본 킹삭스(레이팅56, 수, 김영관 조교사)가 선봉에 선다. 8월 데뷔 후 3전3승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1000~1300m 경주

에 출전한 경향이 있지만 이번 브리더스컵에서의 1400m 경주는 첫 출전이다. 강인한 체력으로 또 다시 우승을 거머쥘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킹삭스는 김영관 조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경주마다. 김 조교사는 통산 1149승(11월29일 기준)에 승률 22.7%를 기록 중인 현역 최고의 조교사다. 올해도 98승(승률 31.5%)을 수확하며 서울경마 조교사와 통틀어도 압도적인 승수를 올리고 있다.

데뷔 후 줄곧 연승을 이어온 서울경마의 대완마(레이팅53, 암, 서인석 조교사) 역시

만만찮은 상대다. 대완마는 10월 과천시장배에서 첫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했다. 초반 순발력이 탁월하고 경주적응력이 좋다는 평가다.

다만, 1200m 이하의 단거리 경주경험만 있어 200m 거리가 추가된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사다.

그 외 기본기가 출중한 부경의 영광의시크릿(레이팅50, 수, 장세한조교사), 과천시장배에서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서울의 도끼블레이드(레이팅39, 수, 박대홍조교사)가 우승을 노리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왕벚꽃 탄 김용근 기수
농협중앙회장배 2연패

김용근 기수

김용근 기수가 농협중앙회장배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25일 열린 제15회 농협중앙회장배(제9경주, 1200m, 2세, 혼OPEN)에서 왕벚꽃(2세, 수, 미국, R73)에 기승해 우승을 차지했다.

왕벚꽃은 4코너까지 중반그룹에서 힘을 아끼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직선주로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앞서가던 경쟁자 4두를 순식간에 제치고 선두에 올라섰다. 추입을 시작한 경쟁자들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3연승에 성공했다. 경주 기록은 1분11초4이며 2위 하바나찰리(2세, 거, 미국, R62)와는 1/2 마신(약 1.2m) 차이였다.

김용근 기수는 “지난해 우승마 피케이파티가 3세 시즌에 훌륭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어 뿌듯하다. 왕벚꽃 또한 2세 신예마임에도 가능성이 상당해 내년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용운 기자

경마 단신

배대선 조교사, 역대 8번째 800승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활동 중인 배대선 조교사(58세, 20조)가 18일 제1경주에서 800승을 달성했다. 800승을 돌파한 조교사는 서울과 부경을 통틀어 역대 8번째다. 1995년에 조교사로 데뷔한 배대선 조교사는 “매 경주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그랬던 한 경주, 한 경주가 쌓여 800승이 된 것 같다. 마주, 기수, 마방에서 일하는 조원들이 함께하기에 800승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사회, 하반기 말 예방접종 지원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말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2018년도 하반기 전국 말 예방백신 접종사업을 12월18일까지 실시한다. 말 주요 전염병 2종(말인플루엔자, 선역)에 대해 11월 말~12월에 걸쳐 1200여 농가의 말 1만9000여두 규모로 지원한다.

한국판 ‘엘 시스템아’ 마사회가 이끈다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등
정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한국마사회가 농어촌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렛츠런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해 농어촌 지역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참여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농어촌 희망재단 마을공동체 문화 지원 사업, 말박물관 운영, 사회공헌 페스티벌 등이 있다.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국형 ‘엘 시스템아’로 불리며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다.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로 음악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에는 2011년부터

전국 11개에 걸쳐 9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사할린 주와 업무협약을 맺어 합동 연주회 및 음악캠프도 진행했다.

한국의 마(馬)문화를 소개하는 ‘말박물관’도 한국마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다. 1988년에 개관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말박물관은 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으며, 무료 대관 기회를 제공해 70명 이상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는 기업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도시민뿐만 아니라 농어촌에도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마사회를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은 20일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새로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렉스나인(주), ㈜세아홀딩스,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5개 기업에게 인증패가 전달됐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문화예술 후원을 많이 한 단체와 기업 등을 심사한다.

정용운 기자



스포츠토토

“북런던더비…토트넘이 승리할 것” 44%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2월 1일(토)부터 3일(월)까지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8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에서 국내 축구팬들은 아스널(홈)-토트넘(원정)전에서 44.38%가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31.36%로 나타났고, 홈팀 아스널의 승리 예측은 24.26%를 차지했다.

토트넘과 아스널이 ‘북런던더비’를 펼친다. 현재 리그 순위는 3위(10승3패)를 차지하고 있는 토트넘이 5위(8승3무2패)를 기록하고 있는 아스널에 비해 우세함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자존심 싸움 이외에도 리그 선두권 순위 경쟁에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일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본머스전에서 승리하며 세 경기 연속 ‘무승부의 늪’에서 기본 좋게 탈출한 아스널이지만, 최근 중요한 경기를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고 있는 토트넘의 분

위기를 고려해 볼 때, 토트팬들의 기대와 같이 ‘북런던더비’에서 토트넘이 근소한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또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도 모두 높은 승리 투표율을 기록했다. 안방경기를 치르는 리그 1위 맨시티는 본머스를 상대로 84.90%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회차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상위권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맨유 역시 사우샘프턴 원정경기에서 70.06%의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K리그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69.2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전남드래곤즈 승리 예상은 각각 19.11%와 11.63%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더불어 K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현대 역시 64.72%의 투표율을 기록해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고됐고, 원정경기를 치르는 FC서울의 승리 예상은 48.20%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 안방서 OK저축 잡는다” 39%

농구토토 W매치 72회차 중간집계

국내 농구팬들은 30일(금)에 열리는 2018~2019시즌 국내여자프로농구(WKBL) 신한은행-OK저축은행전에서 홈팀인 신한은행의 우세를 예상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오는 30일(금) 오후 7시에 인천도원시립체육관에서 열리는 신한은행(홈)-OK저축은행(원정)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W매치 72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결과, 전체 참가자의 39.17%가 신한은행의 승리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0점 이내 박빙을 예상한 참가자는 30.44%로 뒤를 이었고, 원정팀 OK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상한 참가자는 30.39%로 나타났다. 전반전에서도 신한은행의 리드 예상이 39.05%로 우위를 차지했고, OK저축은행 리드(35.59%)와 5점 이내 접전(25.35%)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는 신한은행과 OK저축은행이 모두 60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인 13.71%를 1순위를 차지했다.

신한은행과 OK저축은행이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진행한다. OK저축은행과 신한은행은 리그에서 각각 5위(2승5패)와 6위(1승7패)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양 팀이 부진한 원인은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먼저 신한은행은 주포 김단비와 외국인 선수 먼로가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내외곽에서 활약을 펼쳐줘야 될 선수들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OK저축은행 역시 같은 처지다. 슈터 노현지가 무릎 연골이 찢어져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평균 5.2득점, 1.7리바운드, 1.6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노현지의 공백은 갈 길이 바쁜 OK저축은행의 입장에서 뼈아픈 상황이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 및 결장으로 인해 양 팀이 온전한 경기력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안방의 이점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67-70으로 패하긴 했지만, 원정경기에서 OK저축은행과 3점차의 접전을 치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방에서 치르는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경기다.

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1899-1119’로 신고하세요

실내 스포츠의 계절인 겨울이 돌아왔다. 지난 달부터 막을 올린 국내남자프로농구 KBL과 여자프로농구 WKBL은 물론 미국 프로농구 NBA, 그리고 남녀 프로배구까지 다양한 종목이 스포츠팬들을 찾아가고 있다. 게다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와 UEFA 챔피언스리그와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유럽축구까지 전 세계 스포츠팬들의 눈과 귀를 연일 즐겁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경기가 열린다는 것은 스포츠팬으로서 반가운 일이지만,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모든 신고는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1899-1119)로 문의하면 된다.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는 평일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되며,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신고, 접수 및 수사회의를 비롯해 선수 및 감독 등 경기 조작 관련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